



차기 정부의 대외통상정책 -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

발제자료

2007년 2월 1일



정 인 교
FTA연구센터
인하대학교



목차(주요 이슈)

- 향후 대외통상환경 전망
- 세계화 어떻게 봐야 하나?
- 도하개발의제(DDA) 협상
- 선진국 개도국 지위
- 자유무역협정(FTA) 정책
- 동아시아/동북아 경제협력
- 공적개발원조(ODA)
-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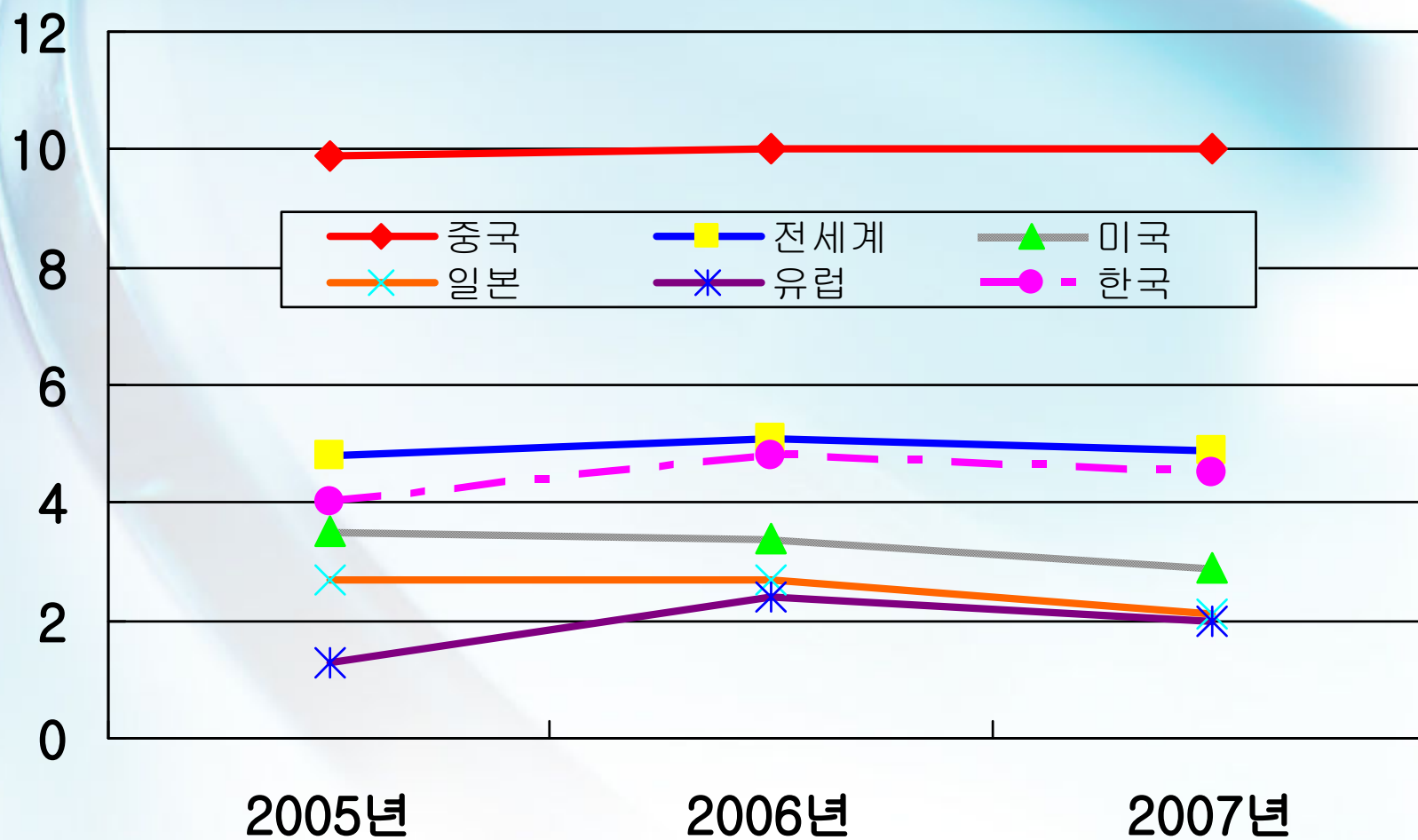


향후 대외통상환경 전망

- 세계화와 국제경쟁 가속화 및 전략적 제휴 확대
 - FDI 유치 확대 투자환경 개선 및 각종 인센티브 경쟁
- 중국의 정치경제적 급부상 지속
 - 인도, 중동, 중남미 등과의 FTA 확대
 - 북경올림픽(2008), 상해 세계박람회(2010)
- DDA 다자협상 부진 지속
 - 미국과 EU간 합의로 극적 돌파구 가능성 있으나, 협상타결에는 용이하지 않을 듯
- 한편, FTA 등 지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
 - 지역주의 불참에 따른 손실 확대
- 미국, EU 등 선진국경제 연착륙 가능성
 - 민주당 의회 장악으로 미국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도입 가능성
- 국제유가 하향 안정 전망속 급등 가능성
 - 미국의 대이라크 전략에 따라 고유가로 전환될 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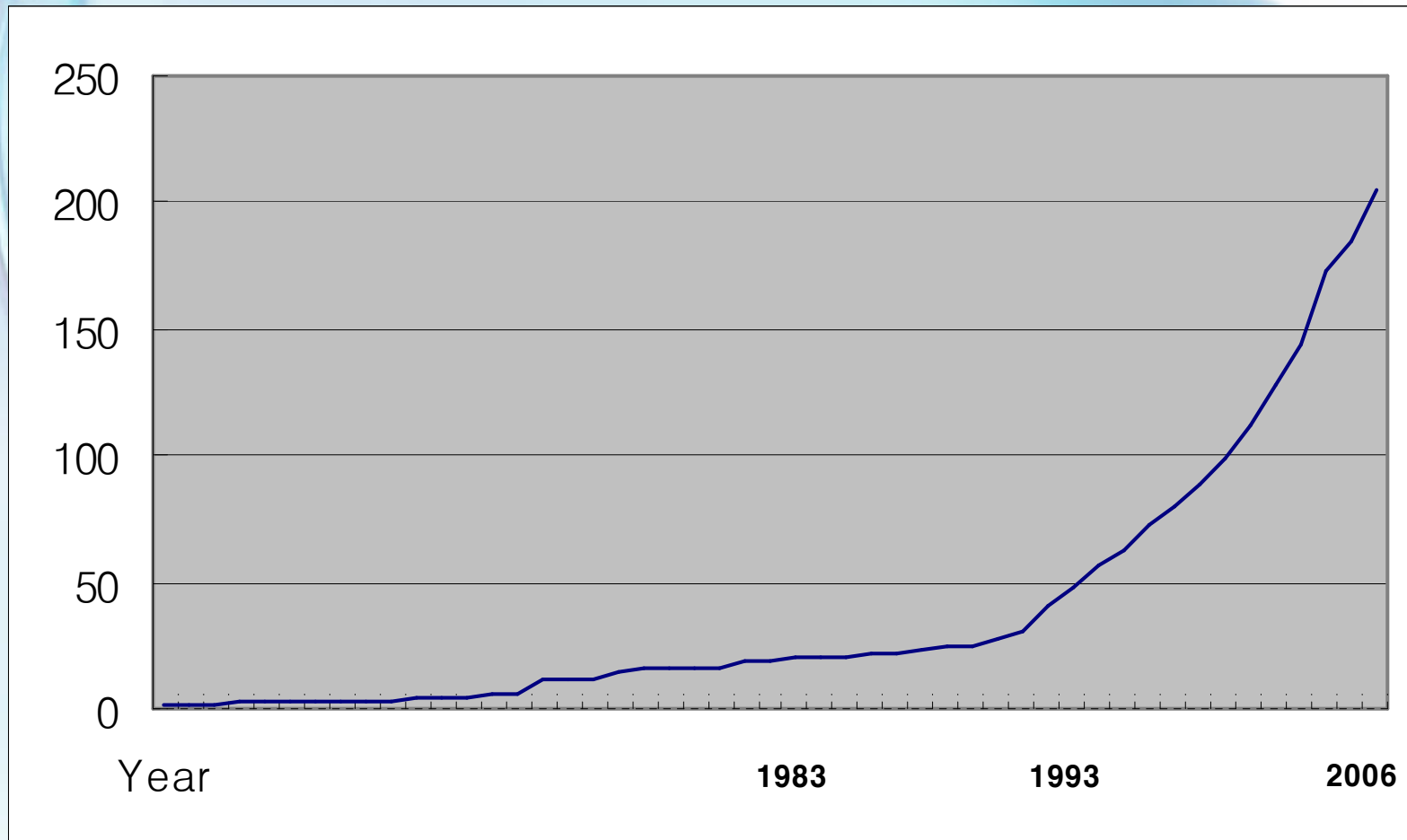


세계경제 성장 전망





지역무역협정의 발효 개수(1958-2006)





세계화 어떻게 봐야 하나?

■ “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다”

(T.L. Friedman, *렉서스와 올리브나무*)

■ “세계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빈곤을 선택한 것과 같다”

(L.C. Thurow *세계화 이후 부의 지배*)

■ 헤지펀드 폐해, 환경악화, 부의 불평등 등 세계화의 부작용 발생

- 반세계화 운동
- 폐쇄경제는 사태 더 악화, 우리 경제여건으로는 세계화 동참 불가피
- 투명성, 표준화(회계 등), 부패척결, 사회안전성 강화로 부작용 최소화 가능

■ 세계 통상룰 제정하는 미국경제의 위상, 경제적 긴밀도 등을 고려하면 한-미 FTA는 세계화 지름길로 활용 가능

■ 세계화의 성패는 사회적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

- 국가 구성원의 합의 도출 및 정부의 리더십(아일랜드, 핀란드, 싱가포르)



도하개발의제(DDA) 협상

-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, “도하개발아젠다(DDA)” 다자간 무역협상 개최 합의
 - 당초 DDA는 2002년초부터 시작되어 2004년말까지 3년간 협상 예정으로 협상 개시
- 선진국과 개도국간, 미국과 EU간,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입장차이로 협상이 부진하게 진행
- 2006년 7월 23일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(TNC)를 통해 DDA 협상 일시 중단 선언
 - 선진국(G8) 및 주요국 G6 각료회의 농업 분야의 주요 쟁점 타결 실패
- 최근 라미 사무총장 협상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, 협상 중단에 대한 부담으로 협상 개시 가능성 높음.



- 우리 경제 구조 및 특성상 다자무역 자유화로 경제이익 기대
 - 70%의 높은 교역의존도,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가진 중화학공업, 수입의 90%가 부품 및 원부자재
-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
 - 다자간 자유화가 최선의 무역정책
 - 농업개방 피해 우려되나, 농업도 구조조정 불가피
 - 119조 농업지원기금 활용으로 피해보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
- DDA 협상 재개 및 타결에 외교통상 노력 가속화해야
-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다자통상협상 평가해야
- 개도국 지위 유지 정부입장도 검토해야 할 시점



개도국지위 유지 가능성

- 1990년대와는 상황이 다름(APEC Bogor)
-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
 - 대만, 중국 등 WTO 가입시 일부 선진국 간주
 - DDA 타결 지연은 개도국지위 유지에 더 불리
- 상당한 양보를 통해 개도국지위 유지 가능할 수 있으나, 경제적 실익, 농업구조조정 지연 등에서의 문제 제기
- 개도국 세분화 논의시 우리나라의 입장은 더 약화될 것
 - DDA 이후에는 선발개도국 지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



자유무역협정(FTA) 정책

- 세계 경제 FTA 의존도 심화 경향
 - 체결 건수, 무역량, 주요국의 관심 등
-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이행여부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 및 통상체계 선진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
 - 2007년 상반기중 타결 가능성
 - 차기 정부 국회비준과 이행 절차
- 한미 FTA 협상이 장기화되면, 차기 정부 한미 FTA 타결을 최대 통상정책목표로 설정해야
- 미국과의 FTA 타결이 지연될 경우, EU, 중국 등과의 FTA도 차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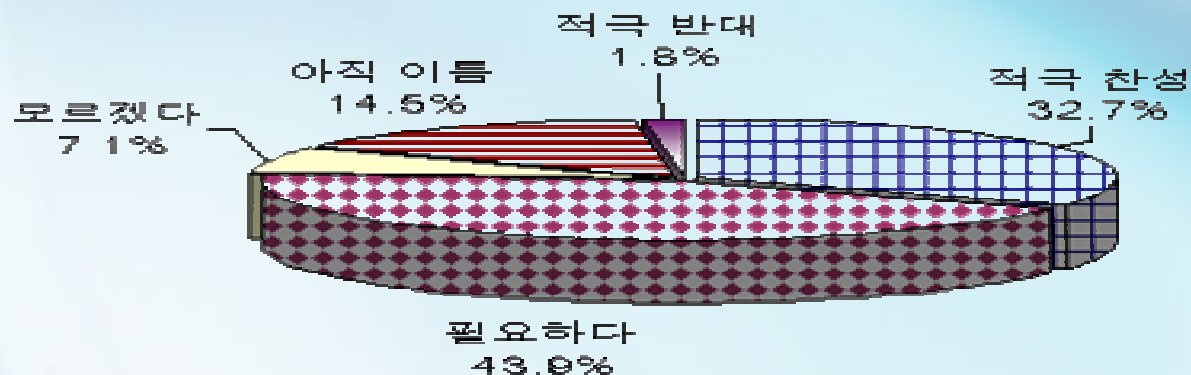


한미 FTA의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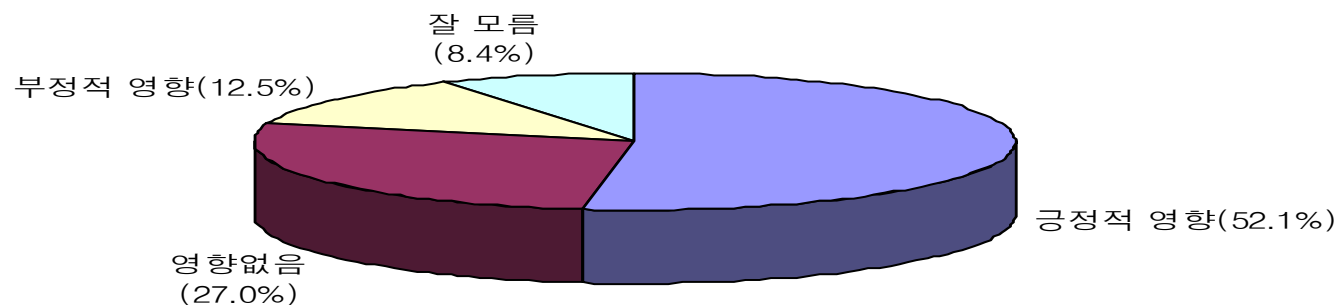
- 미국과의 FTA로 상당한 경제이익 확실
 - 수출입 구조로 보면 제조업계에게 기회제공
 - 농업 민감성. 대미국 수입 농산물 증가는 제3국 수입 대체효과 클 듯
 - 서비스업 제한적 개방. 무역위주 협정.
- 세계경제 rule maker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제도 선진화에 기여
- 경제제도 선진화 및 투자환경 개선없이
현재의 제조업 확대생산에 의존하게 될 것
 - 중국, 인도, 동남아 등 중저가 공산품에 대한 경쟁력 상실은 시간문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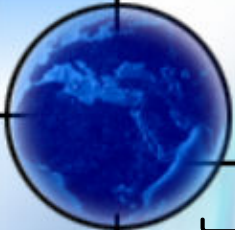
한-미 FTA에 대한 업계의 입장



<한-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>



자료 : 산업연구원(2006.3월)



FTA 대상국으로서의 미국

- 높은 FTA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국 여건 구비
 - 개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유리
 - 경제적 소국에게는 소국보다는 대국이 유리
 - 상대국이 교역장벽이 높을수록 높은 경제효과
 - 경제적 긴밀도가 높을수록(즉, 교역규모가 클수록) 높은 경제효과
- 미국은
 - 세계 제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세계최고 선진국가
 - 세계에서 가장 수준높은 소비자집단과 내수시장 규모 보유
 - 서비스산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
 -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미국 서비스산업과 접목으로 서비스산업 발전
 - 미국의 관세는 우리의 1/3 수준이지만, 내수시장이 17배('04)이므로 높은 경제효과 기대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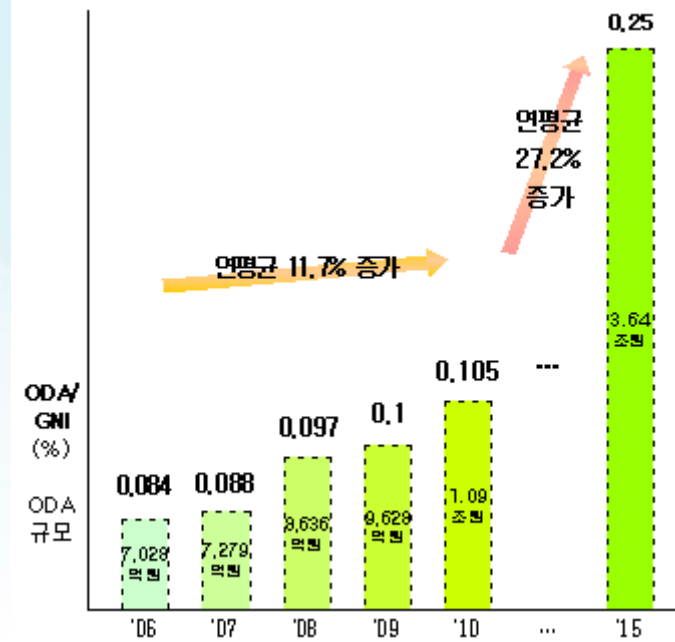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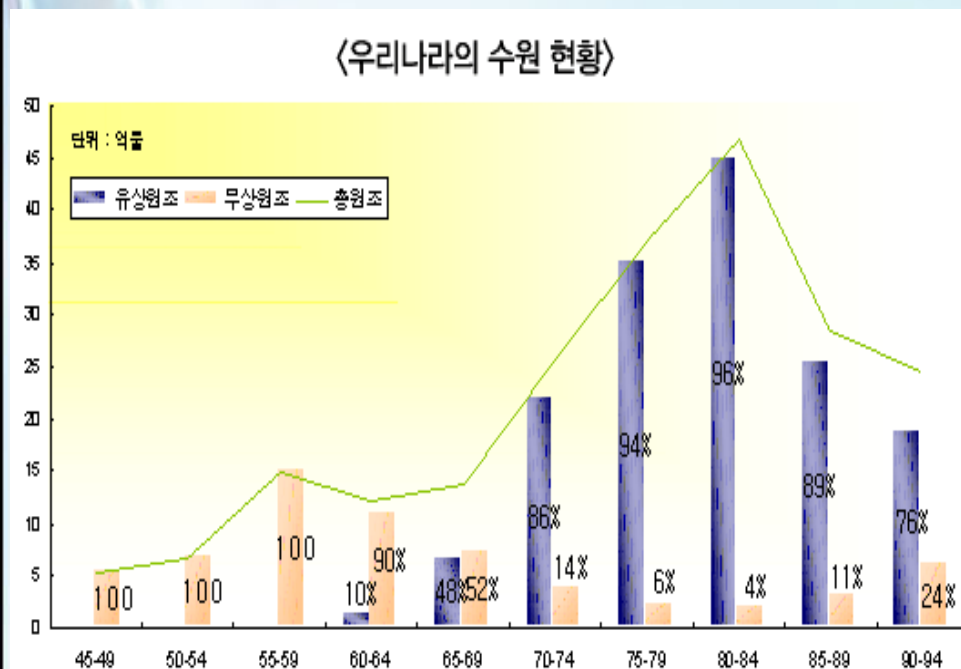
동아시아 경제협력

- 금융위기직후인 1998-2002년 ASEAN+3 정상회의 통해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주도
 - EAVG, EASG 등 제안했으나, 이후 중국과 아세안 위주로 논의 진행
- 2005년 이후 중국, 동아시아 FTA 논의 주도 및 일본과 리더십 경쟁 상황
- 우리나라 동아시아 FTA 및 경제통합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차원 논의가 부족한 상황
- 미국, EU,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하더라도 동북아/동아시아 차원의 지역경제협력 차원의 클 틀 마련해야
- 이와 관련 “동북아비즈니스중심” 과제는 대외용보다는 대내용(제도 및 투자환경 개선)이 바람직



해외공적원조(ODA)

-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지난해 국민소득 (GNI) 대비 ODA 비율은 0.096%로, 선진공여국 평균 (0.33%)의 3분의 1 이하 수준





결론

- GDP(7,930억 달러) 세계 10위('05)
- 교역규모(5,532억 달러) 세계 12위('05)
-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보유
 - 반도체, 조선: 세계 1위
 - 철강: 세계 2위
 - 석유화학, 전기전자: 세계 3-4위
 - 자동차: 세계 5위
- 높은 교역의존도에 비해 국내시장개장에는 소극적
- 통상마찰 가능성 증대
- 대외통상환경에 순응해야 하고,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통상체제 및 경제제도 구축 필요
- 개도국지위, ODA 등의 이슈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초투자로 인식해야



감사합니다